

오니치노전답서

(WND(영문 어서) 1089~90쪽, 어서 전집 1263쪽)

벤노보(弁房)의 인편(人便)에 삼백문(三百文)과 이번(이번)에 이백문(二百文) 받았소이다. 부처는 참으로 존귀(尊貴)하여 재물(財物)에 의하지 않느니라. 옛날 득승동자는 모래 떡을 부처께 공양 드려서 아육대왕으로 태어나 일념부제의 주(主)가 되었었다. 빈녀(貧女)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기름과 바꿨는데 수미산을 불어 뽑아버린 바람도 이 불을 끄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이삼(二三)의 엽전은 일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바치고, 칠보의 탑을 도리천까지 쌓아 올린 것 보다 더하니라. 법화경의 일자(一字)는 대지(大地)와 같으니 만물을 낳고, 일자(一字)는 대해(大海)와 같으니 증류(衆流)를 포함하며, 일자(一字)는 일월(日月)과 같으니 사천하(四天下)를 비춘다. 이 일자(一字)는 변하여 부처가 되고, 벼는 변하여 묘(苗)가 되고, 묘(苗)는 변하여 초(草)가 되고, 초(草)는 변하여 쌀이 되고, 쌀은 변하여 사람이 되고, 사람은 변하여 부처가 되고, 여인은 변하여 묘(妙)의 일자(一字)가 되고, 묘(妙)의 일자(一字)는 변하여 대상(臺上)의 석가불이 되느니라. 남묘호렌게쿄 남묘호렌게쿄, 공공근언

배경

이 어서는 1280년 (홍안 3년) 미노부에서 오니치노라는 여성에게 주신 편지이다. 오니치노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편지의 앞부분에 언급된 니치렌 대성인의 제자 닛쇼(벤노보)와 연관이 있는 신도인 것으로 보인다.

대성인께서는 모래 떡을 공양한 득승동자와, 머리를 팔아 기름을 공양한 빈녀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오니치노의 공양을 칭찬하신 후, 모든 사람들을 성불로 이끄는 남묘호렌게쿄의 위대함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다.

키 포인트

1.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 - 대성인께서는 업전을 공양한 오니치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칭찬하시며, 모래 떡을 공양한 득승동자와 기름을 공양한 빈녀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진심을 담은 공양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고 있다.
2. 묘법의 위대함 - 대성인은 또한 묘법을 만물을 낳는 대지(大地), 종류를 포함하는 대해(大海), 그리고 만천하를 비추는 일월(日月)에 비유하시며 그 위대함을 설명하시고 있다.

강 의

1)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

“부처는 참으로 존귀(尊貴)하여 재물(財物)에 의하지 않느니라. 옛날 득승동자는 모래 떡을 부처에게 공양 드려서 아육대왕으로 태어나 일념부계의 주(主)가 되었다. 빈녀(貧女)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기름과 바꿨는데 수미산을 불어 뽑아버린 바람도 이 불을 끄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이삼(二三)의 업전은 일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바치고, 칠보의 탑을 도리천까지 쌓아 올린 것 보다도 더하니라.”

이 편지는 니치렌 대성인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280년(58세), 미노부에서 오니치노에게 주신 어서이다. 이 어서를 받은 오니치노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성인의 6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앞부분에 벤노보라고 언급됨) 닛쇼와 연관이 있는 카마쿠라의 신도인 것으로 보이며, 닛쇼의 어머니라는 설도 있다.

대성인께서는 이 어서의 전반부에서 오니치노의 공양에 최대의 감사를 표하며, 공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가르치시고 있다.

이 어서는 진심이 담긴 공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득승동자(득승동자라고도 함)의 이야기이다. 석존이 왕사성에서 결석행을 하고 있을 때 득승동자(사야)와 무승동자(비사야)라는 두 명의 소년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다. 둘은 석존을 보고 기뻐서 뭔가 공양을 하고 싶은 마음에, 득승동자는 모래 떡을 만들어 공양하고 무승동자는 합장을 했다. 부처에 대한 진심 어린 공양 덕분에 득승동자는 후세에 아육대왕 (아소카 대왕)으로, 무승동자는 왕비로 태어났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산스크리트 판에서는 득승동자의 서원과 석존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득승동자는 석존에게 모래 떡을 공양한 후 ‘이러한 공덕으로 나는 후세에 전국을 통일하는 왕이 되어 존귀한 부처님을 섬길 것이다.’라는 소원을 빌었다. 석존은 동자의 서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이로 인해 동자의 기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석존은 동자의 모래 떡을 받게 되고, 이 공덕이 훗날 아육대왕의 위대한 업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우경권3에 나오는 등불을 공양한 가난한 여인에 관한 것으로, 이 어서에서 대성인이 인용하신 부분은 원문과는 약간 다르다. 원문에 따르면 마가다국에 살고 있던 빈녀는 부처에게 공양을 하고 싶어도 가난하여 아무것도 공양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사세왕이 부처에게 등불을 공양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하여, 자신도 공양하기 위해 구걸을 하여 돈을 모았지만 등불 하나를 밝힐 정도의 기름밖에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아사세왕이 공양한 기름으로 밝힌 등불이 모두 꺼진 후에도 빈녀의 등불 하나만은 밤새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났다고 한다.

오니치노는 미노부에 계시는 대성인을 위해 처음에 업전300냥, 그리고 후에 또 200냥을 공양했다. 문헌에 따르면 당시 10냥으로 쌀 4바가지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하니 500냥이라는 공양이 결코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성인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심을 다한 공양을 한 오니치노의 마음을 알고, “부처는 참으로 존귀(尊貴)하여 재물(財物)에 의하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또한 오니치노의 마음을 칭찬하시며 “이 이삼(二三)의 업전은 일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바치고, 칠보의 탑을 도리천까지 쌓아 올린 것 보다도 더하니라.”라고 쓰셨다.

득승동자와 빈녀의 이야기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듯 진심을 다한 마음이야말로 최고로 훌륭하다. 이러한 마음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부처를 보고 감동하여 모래 떡을 공양한 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확신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공양한 것은 아니다. 득승동자의 모래 떡은 진심을 다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빈녀 역시 등불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잘라 기름을 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부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불법에서는 흔히 재공양과 법공양의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재공양이란 불법 유향을 돕기 위해 돈이나 여러 가지 물건 등 물질적인 공양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반드시 올바른 불도수행자의 조직에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성인께서는 “진실한 마음일지라도 공양을 받는 사람이 나쁘다면 공덕으로 되지 않고 도리어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노라. (어서 1486쪽)”라고 말씀하셨다. 법공양이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올바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법유향을 위해 학회에 재공양을 하든 절복을 통하여 법공양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양이라고 대성인께서는 가르치시고 있다.

대성인께서는 또한 자신의 예를 들어 타인의 진심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주의의 증명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최대한 밖으로 표출하여 성장해 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타인의 외모나 재산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경애를 개발하는 중요성을 망각한 채, 외모를 가꾸고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집착하게 된다. 대성인께서는 “마음만이 중요하니라. (아서1192쪽)”, “마음의 재(財)가 제일이로다. (아서1173쪽)”라고도 말씀하시고 있다. 자신의 생명 경애를 발전시켜 확고한 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인의 진심을 깨닫고 그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진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묘법의 위대함

“법화경의 일자(一字)는 대지(大地)와 같으니 만물을 낳고, 일자(一字)는 대해(大海)와 같으니 중류(衆流)를 포함하며, 일자(一字)는 일월(日月)과 같으니 사천하(四天下)를 비춘다. 이 일자(一字)는 변하여 부처가 되고, 비는 변하여 묘(妙)가 되고, 묘(妙)는 변하여 초(草)가 되고, 초(草)는 변하여 썩어 되고, 썩은 변하여 사람이 되고, 사람은 변하여 부처가 되고, 여인은 변하여 묘(妙)의 일자(一字)가 되고, 묘(妙)의 일자(一字)는 변하여 대상(臺上)의 석가불이 되느니라.”

이 어서의 뒷부분에서는 묘법의 위대함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다. 여기에서 ‘법화경의 일자란 일체경의 진수인 묘법의 남묘호렌계교를 말한다. 남묘호렌계교란 단순히 법화경의 일본식 발음이 아니라, 생명과 우주의 근본법이며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부처의 생명의 이름이다.

대성인께서는 이 어서에서 남묘호렌계교의 묘법을 대지, 대해, 그리고 해와 달에 비유하시며 묘법의 다양한 공덕을 설명하시고 있다. 먼저 “법화경의 일자는 대지와 같으니 만물을 낳고”라고 쓰시고 있다. 묘법은 모든 현상을 낳는 원천이지만 결코 그것들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묘법을 반영하고 있다. 각각의 생명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생명은 묘법이라는 대지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곧 남묘호렌계교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목을 부름으로써 모든 행동을 묘법 근본으로 해 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일자(一字)는 대해(大海)와 같으니 중류(衆流)를 포함하며”란 묘법이라는 위대한 바다 속에 모든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석존은 생명 최고의 진리인 남묘호렌계교의 깨달음에 근거한 많은 가르침들을 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묘법이라는 하나의 가르침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다른 모든 가르침(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종교와 철학적 가르침들은 묘법을 반영하는 당체인 인간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묘호렌계교라는 하나의 가르침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확신을 가지고 우주의 법리인 남묘호렌계교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불지혜를 끄집어 낼 수 있다.

계속해서 “일자(一字)는 일월(日月)과 같으니 사천하(四天下)를 비춘다”는 비유는 우리가 모든 현상의 토대가 되는 묘법을 근본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주변환경의 참된 모습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집착에 현혹되면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참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고, 틀에 맞춘 행동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쉽다. 생명 속에 내재한 불성을 확신하며 제목을 부름으로써 묘법의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외부 환경을 모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성인께서는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묘법의 위대함을 통한 오니차노의 성불을 단언하시고 있다. 전통 불교에서는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는 존재이며,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법화경과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서는 “말법에 와서 남묘호렌계교의 오자를 흥통하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아서 1360쪽)”라는 어서에도 나와있듯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똑같이

불성을 용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대성인은 계속해서 남묘호렌계교의 묘법이 어떻게 모든 현상을 낳는지 설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묘법에서는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인은 변하여 묘(妙)의 일자(一字)가 되고, 묘(妙)의 일자(一字)는 변하여 대상(臺上)의 석가불이 되니라”라고 쓰시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묘(妙)의 일자(一字)”란 남묘호렌계교를 말하며, “대상(臺上)의 석가불”이란 성불 경애를 말한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 청정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라도 성장과 성공의 도약대로 전환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의 성불 경애를 상징한다. 대성인께서는 이 어서에서 오니치노에게 묘법을 믿는 순수한 신심을 통해 반드시 환회에 찬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경애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사색을 위한 주제

1. 진심을 다한 ‘재공양’과 ‘법공양 (절복)’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체험담을 서로 이야기 해 봅시다.
2. 대성인께서는 묘법을 ‘대자’와 ‘대양’ 그리고 ‘일월’에 비유하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중 어떤 비유가 대성인 불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